

■ 화제의 뉴스 ■

기획재정부, 종합심사낙찰제 가이드라인 공개 관련

올해 첫 도입되는 종합심사낙찰제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2014년 1월 14일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첨부 관련 자료 참조). 종합심사제는 최저가낙찰제가 과도한 가격경쟁을 유발하여 덤핑, 공사 품질 저하 등을 초래한다는 국회 등의 문제제기에 따라 마련된 제도로써, 공사수행능력, 가격, 사회적 책임 점수의 합계가 가장 높은 입찰자를 사업수행자로 선정합니다. 종합심사제의 평가 부문은 공사수행능력(40~50점), 가격(50~60점)으로 나뉘고 사회적 책임(1점) 부문은 가점 방식(총점 101점 만점)으로 운영됩니다. 공사수행능력 중 시공평가(12~25점)는 원칙적으로 최근 3년간 해당업체가 동일공종그룹 공사에 받은 시공평가점수의 가중평균으로 산정됩니다.

기획재정부는 가격변별력을 낮추고, 과거 시공물에 대한 평가와 시공경험 등 공사수행능력 평가 비율을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일부에서는 제도의 도입취지와는 달리, 균형가격 설정으로 낙찰률이 더 낮아질 것이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2015년까지 2년간 시범사업을 거칠 예정이며, 2014년 시범사업은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 공사 가운데 22건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공개된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실적분석을 진행하고 사회적 책임 부문과 관련해 필요한 인증도 미리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종합심사낙찰제 방식에서는 발주기관의 선택폭이 늘어나며, 예정가격 공개 여부도 발주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주요 발주기관별 대비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자료]

- [2014년도 국가계약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관련 기사]

- [MTN -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노하우 · 인력' 핵심\(2013. 1. 15.\)](#)
- [건설경제신문 -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평가기준 공개\(2013. 1. 14.\)](#)